하늘이 내린 큰 복

天降洪福

하늘이 내린 좋은 약 | 전염병에 걸린 유학생 커플이 3일 만에 회복 | 인도 의사가 겪은 기적

제132기

밍후이 정기간행물 | MINGHUI.ORG | 격월간

회화《진상을 알고 복을 받다》

목차

권두일문 3 하늘이 내린 좋은 약

길성고조(吉星高照) 4 전염병에 감염된 유학생 커플이 3일 만에 회복되다
6 하늘의 뜻을 따르고 얻은 아들
7 경찰의 일념으로 어머니가 구원받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8 큰 전염병에서 생사의 고비를 겪다
11 대법으로 고해(苦海)에서 구도되다

세상을 이롭게 하다 14 인도 의사가 겪은 기적
18 온 세상 사람이 함께 「5.13」을 경축하다
20 세계 정계인사 1천여 명, 파룬따파 세계 홍전 30주년 축하

평안을 얻는 길 22 뉴욕 홍수에서 신적(神迹)을 목격하다
24 그들은 왜 늘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었을까?

아는 것이 복 26 호주로 이민 온 후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항간여론 30 천안문 분신자 류춘링의 많은 현찰이 수상하다며 이웃들이 의논하다

하늘이 내린 좋은 약

동한(东汉) 시기의 명의 비동(邳彤)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병치료에 정성을 다했다. 비동의 의덕(医德)과 의술이 출중해 황제는 그를 '약왕(药王)'으로 책봉하고 생사당을 세워줬다.

어느 해 남방에 역병이 유행해 비동이 그 지역으로 달려가 병치료를 했다. 그사이 비동의 어머니가 병이 위중해 백약이 무효했다. 비동이 전염병 지역에 환자가 너무 많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자 형 비축(邳祝)은 어머니를 비동에게 모셔왔다.

어머니를 진맥한 비동이 처방전을 써냈으나 필요한 약을 찾기 어려웠다. 비동은 어머니의 병세를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고 형에게 다시 어머니를 모셔가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비축과 어머니는 돌아가는 길에 황무지에 도착했고 어머니가 갈증으로 힘들어했다. 비축이 도처로 찾아다녔으나 물이 없고 나중에 회화나무 숲에서 죽은 사람의 두개골에 담긴 빗물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두 마리 작은 뱀이 노닐고 있었다. 비축이 작은 뱀을 쫓아내고 그 물을 어머니에게 들고 왔다. 어머니는 극도의 갈증이 나서 두 눈을 감고 단번에 마셨더니 한결 나아졌다.

또 하루는 어머니가 배고픔을 참기 어려웠으나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 비축이 문을 두드려 구걸했다. 공교롭게도 한 집에서 방금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사가 났다. 이 집 시어머니는 맹인이었고 시아버지는 절름발이였는데 누군가 구걸한다고 하니 산모가 먹다 남은 율무밥과 계란 하나를 줬다. 뜻밖에 그건 쌍란이었고 어머니가 드시자 즉시 힘이 나는 느낌이었다.

결국 얼마 후 어머니의 병이 나았는데 나중에 비동이 인편에 보내는 서신에 다음과 같은 처방전이 적혀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두 마리 용이 노닌 천연수를 마실 수 있고, 쌍둥이가 태어나는 집의 쌍란을 드실 수 있으며, 시누이가 연자방아로 맷돌에 빻은 율무쌀로 절름발이 시아버지와 맹인인 시어머니가 지은 밥을 드실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병이 낫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 이 구하기 힘든 약을 구해준 것이었다.

福德祥瑞

'선행을 하는 집에는 반드시 조상의 은덕이 내려진다.' 비동이 한마음으로 널리 백성을 구제하자 그의 어머니는 비로소 하늘이 내린 좋은 약을 먹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전염병에 감염된 유학생 커플이
3일 만에 회복되다

[랴오닝 투고] 해외에 있는 내 딸은 2021년 4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전염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남자 친구와 함께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2022년 3월 6일, 딸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열이 나고 전신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있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집에 알리지 않았으나 딸이 나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다.

나는 파룬궁수련자로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고 대법(大法)의 구자진언(九字真言)을 진심으로 염하면 인체 내 정기를 강화해 바이러스를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딸에게 완곡하게 알려주고 남자친구에게 '삼퇴'(중공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를 권고하며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구자진언을 염하도록 했다.

딸은 남자친구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아무리 말해도 탈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딸이 권한 《구평공산당(九评共产党)》 책을 보는 것은 동의했다.

나는 딸에게 전화를 남자친구에게 건네게 하고 "좀 괜찮아졌니? 아직도 열이 나니?"라고 묻자 열이 내렸다고 했다. 그날 밤 그가 밤새 《구평》을 읽었던 것이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중국에는 '있다 할지언정 없다고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네가 빨리 낫기를 바란다. 어서 빨리 구자진언을 염해보렴. 마음과 사상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딸의 남자친구는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딸을 통해 그가 소선대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탈당 홈페이지에 그가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우리 중국에는 '있다 할지언정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 네가 빨리 낫기 바란다. 어서 빨리 '구자진언'을 염해보렴."

셋째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자친구가 그날 나와 통화 후 잠들었는데 깨어난 후 전신에 힘이 났고 목만 조금 아프다고 했다.

딸의 남자친구가 회복된 후 딸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남자친구가 조급해서 말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나한테 전염됐어!" 딸은 "난 괜찮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했다.

딸은 대법을 배우고 연공도 배운 적이 있으며 일찍이 삼퇴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딸은 일을 마치고 죽만 조금 먹고 숙소로 돌아가 속으로 계속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구자진언을 염했다. 염하다가 잠이 들었고 5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홀가분하고 목만 조금 아팠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틀 반 만에 회복됐다.

딸을 보살피려던 남자친구는 딸의 정신상태가 좋아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어? 정말 신기하네. 이 법은(파룬따파) 도대체 무슨 원리야?" 딸은 "나는 조금밖에 배우지 않았어. 나중에 우리 집에 가면 엄마가 잘 알려주실 거야"라고 말했다.

딸과 남자친구가 겪은 일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우한폐렴이 세계를 강타한 지 2년 반 되는 기간에 여러 나라와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구자진언을 염해 전염병 겁난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이 보도됐다.

《황제내경》에서 '인체 내에 정기(正气)가 충족하면 사기(邪气)가 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파룬따파는 고덕불가(高德佛家) 대법으로 진심으로 구자진언을 외워 염하면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공진이 일어나 인체 내 정기가 강화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얻은 아들

[중국 투고] 나는 2007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몇 년간 남편은 베이징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게다가 어른들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하지만 나와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남편의 정자 활착률이 낮고 또한 기형이라 정자가 제자리에서 맴돌며 아주 적은 정자만이 앞으로 헤엄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은 한약을 먹으며 몇 년간 돈은 많이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 2015년 청명절에 한 마지막 검사 결과도 이전과 같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말했다. "고칠 수 없어요. 내가 파룬궁(法轮功)을 잘 수련할 테니 당신도 함께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해요!" 그러자 대법을 믿는 남편은 날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읽기 시작했다.

그해 5월, 장쩌민 고소의 큰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반년간 중국에서 20만 명의 대법제자와 가족들이 파룬궁 박해의 원흉 장쩌민을 실명으로 고소했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대학시절 신체적인 이유로 대법을 수련하게 된 나는 그 후 몸이 매우 좋아졌는데 실제로 대법에서 혜택을 보았다. 대법이 박해를 당해 우리의 합법적인 연공 환경을 잃게 되자 나는 장쩌민 고소에 참여했다. 6월 초 베이징 양고(两高,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에 고소장을 보냈고, 이틀 뒤 배달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6월 중순에 생각지도 않게 나는 임신했다! 마침 고소장 작성 중 임신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나는 우리가 대법을 믿고 하늘의 뜻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했기에 복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이듬해 정월, 나는 10개월 만에 3.8kg의 매우 건강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경찰의 일념으로 어머니가 구원받다

[중국 투고] 몇 년 전 지린(吉林)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한 파출소에서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 기구)의 지령을 받고 경찰을 파견해 파룬궁 수련생 가택을 수색해 수많은 파룬궁 진상 소책자와 전단지 등 자료를 찾아내 파출소로 몰수해갔다.

한 경찰이 파룬궁을 알고 싶은 일념이 생겨 몰래 일부 진상자료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 경찰의 어머니는 마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노인은 침대에서 별다른 일이 없으므로 그 파룬궁 자료를 읽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가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구자진언을 진심으로 염해 기적이 발생한 것을 보고 노인도 해보고 싶었다.

노인은 자료에 있는 대로 대법 구자진언을 염했더니 몸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나중에 노인은 일어설 수 있었고 다리도 완전히 좋아졌다.

눈앞에서 발생한 생생한 사실에서 경찰은 각성했고 파룬궁이 사람을 구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임을 깨달았으며, 당국의 파룬궁 박해는 착오적임을 인식했다.

큰 전염병에서 생사의 고비를 겪다

중공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때, 전염병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을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아무리 큰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살아날 길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선한 일념과 희망을 지킨다면 하늘이 내린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고위험군 노인 2명이 전염병 재난을 겪은 체험담이다.

전염병에 걸린 우한 노인이 성심성의껏 구자진언(九字真言)을 읊어 10일 만에 회복

[우한(武汉) 투고] 나는 우한 원주민으로 올해 75살이다. 2020년 1월 23일, 우한 전체에 바이러스가 확산돼 도시가 봉쇄됐다.

2020년 1월 29일, 나는 열이 나고 끊임없이 설사하며 체온이 37.5도까지 올랐다. 처음에는 감기로 착각해 감기약(곽향정기환)을 먹었다. 이틀이 지나자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져 죽이나 국수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기침하고 힘도 없으며 미열 증세를 보였다.

2월 1일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우한 폐렴 진단을 내렸다. 병원은 침대가 부족해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2월 3일에야 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가족들도 동시에 격리됐다.

2월 4일에 나는 전염병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하고 며칠은 식욕이 더 나빠져 아침 한 끼만 먹었고 호흡도 순조롭지 못했다. 나이가 많은 나는 전염병에 걸린 후 매우 긴장했다.

당시 우한의 전염병 상황은 매우 심각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나와 같은 병실에 있던 한 노인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나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고 화장실에 갈 때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좌변기가 없어 매우 힘들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20년이 넘는 아내가 늘 내게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구자진언을 성심성의껏 읽으면 재난을 피하고 액막이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나도 매우 믿었다. 그래서 입원 기간 매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읽으며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 병세는 정말 서서히 호전됐고 체력

도 빨리 회복됐다. 재검사 결과 몸에 항체가 생겨 열흘 만에 퇴원했다. 식당으로 격리됐던 가족들은 14일 만에 귀가했다. 구자진언의 위력을 목격한 가족들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한이 봉쇄된 전후로 감염자가 매우 많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정말 기적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사의 재앙에서 도와주신 대법과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팔순 노모가 두 번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다

[후베이(湖北) 투고] 2020년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 있던 나는 전염병에 직면한 사람들의 공포와 무력감을 직접 목격했다.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진심으로 대법을 믿고 전염병 재난에서 벗어난 경험을 공유하려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는 올해 84세로 슬하에 8명의 자녀가 있다. 우리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어머니는 서른이 넘어 온몸에 병이 들고 예순이 넘으셨을 때는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반신불수가 됐다.

그때 각종 병이 있던 나는 다행히 파룬궁을 배워 전부 나았다. 그래서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수시로 어머니에게 들려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공이 시작한 파룬궁 박해로 나는 세 번이나 불법적으로 납치됐다. 박해의 압력으로 어머니는 감히 대법 수련에 들어오지 못하셨다. 그러나 대법이 좋음을 믿었고 이 일념으로 덕을 본 어머니는 20년간 병에

걸려 약을 드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2019년 10월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오한으로 온몸을 떨었고 구토까지 하셨다. 이어서 온몸이 아프고 식은땀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져 남동생은 즉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다. 전신 검사 결과 폐암 말기로 암세포가 이미 전이됐다고 했다. 게다가 연로해 진료할 수 없어 단지 진통제와 소염제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식사도 못해 기운이 실낱같아 잠만 들면 죽은 사람과 함께 있는 꿈을 꾸셨다. 또 두 발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고 속이 메슥거리지만 토할 수 없어 매우 괴로워하셨다.

나는 서둘러 재생기를 사서 파룬따파를 믿는 어머니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려드렸다. 차츰 어머니는 음식을 조금씩 드실 수 있었고 통증도 줄어들어 15일 만에 퇴원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한 달 남짓 나와 함께 연공하고 법공부를 하셨다. 몸이 좀 호전된 후 어머니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생각지도 않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나는 어머니의 면역력이 걱정됐다. 걱정할수록 일이 생겨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전화로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셔. 추워서 손발을 덜덜 떨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40도 고열인데다가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만약 내일도 열이 계속 호전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연세에 감당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남동생이 이 상황을 듣자 내게 전화를 걸어 수의를 사서 후사를 준비하자고 했다. 정부 공무원으로 전염병의 실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남동생은 중공 바이러스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노인들을 목격했기에 어머니의 안위를 매우 걱정했다.

> 이윽고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몸이 회복되자 우리 형제자매들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난번 경험이 있던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빠와 올케에게 어머니께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읽어드리라고 했다. 나 역시 어머니께 두려워 마시고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꼭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한 시간쯤 지나자 어머니는 떨림이 멈췄고 다시 두 시간이 지나자 땀이 흠뻑 나더니 열도 내리셨다.

이윽고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몸이 회복되자 우리 형제자매들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福

대법으로 고해(苦海)에서 구도되다

글/ 둥양(冬阳, 중국)

내가 이번 생에 겪은 일은 큰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치지 않는 난에 눈물마저 마르다

난 10여 살 때 뇌막염에 걸려 생명이 위독했다. 뇌막염에 걸리면 골수를 뽑아 검사해야 했는데 골수를 뽑으면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다. 아버지는 병원장과 아는 사이여서 일단 골수를 뽑지 않고 뇌막염을 치료하고, 문제가 생겨도 병원 측에 따지지 않기로 했다. 결과 기적같이 좋아졌고 후유증도 남지 않았다.

스무 살쯤에는 대지진으로 가족을 모두 잃어 눈물이 말랐다.

마흔 살쯤에는 또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큰딸이 시댁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까무러쳤다.

게다가 전신에 병이었다. 노이로제, 저혈압, 빈혈, 인후염, 유선 증식이 임파에까지 미쳐 매우 아팠다. 다리 슬개골이 약해졌고 요추 5번 디스크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 의사는 좀 나이가 들면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의 나는 얼굴이 창백했고 전신에 힘이 없었으며 하루종일 흐리멍덩했다. 월초에 받은 급여로 보름치밖에 안 되는 약을 샀고 중순에 더 구매해야 했다.

큰딸을 잃고 심장병에 걸려 늘 심장이 두근거렸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신기한 대법으로 고해에서 구도되다

큰딸이 살해된 이듬해 봄, 집에 찾아온 친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윈 날 보더니 파룬궁을 연마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연마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됐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의 거듭된 권유로 아침에 파룬궁 연공장에 가보기로 했다.

그때는 아직 박해가 없어서 연공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젊은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선량했다. 그곳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연공을 마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앉아 법공부를 했다.

생각밖에 법공부와 연공한 지 얼마

안 돼 온몸의 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계단을 가뿐하게 오를 수 있게 됐으며 온몸이 홀가분해졌다. 옛날에는 자전거도 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매일같이 연공을 즐겼고 비바람과 눈비가 와도 어김없이 연공했다. 동료가 보고 "당신이 바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의 증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임대옥(林黛玉-소설 '홍루몽'의 연약한 여주인공)처럼 날마다 앓았는데 지금은 튼튼하고 얼마나 좋아요"라고 말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우리 부부는 함께 대법을 수련했다. 그때 남편도 몸이 좋지 않았다. 위장병, 십이지장궤양, 요통,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수련한 지 얼마 안 되어 모두 나았다.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했다.

남편이 대법을 수련한 후 술과 담배를 모두 끊자 동료들은 믿지 않았다. 30여 년간 담배를 피웠고 술은 끼니마다 밥상에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에서 금연과 금주에 관한 설법을 들은 남편은 즉시 주머니에 있던 담배 한 갑을 꺼내 버렸다. 이렇게 단번에 모두 끊었는데 사부님의 법력은 정말 끝이 없다.

남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본 동료들은 모두 "우리 누구도 우 씨와 비교가 안 돼요. 그의 각종 수치는 젊은이들보다 좋아요"라고 말했다. 확실히 여러 사람은 많든 적든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남편만 모든 게 정상이었다.

손해 보는 게 복,
혼탁한 세상에서 청렴한 연꽃이 되다

남편은 원래 후덕한 사람이라 대법을 수련한 후에는 더욱 눈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은 뒤로 미뤘다. 작업반에서 일할 때 종래로 남들과 비교한 적이 없고 항상 묵묵히 일하며 매일 칭찬을 받았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다들 질투하지만 그가 칭찬받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동료들은 그들 중 누구도 남편처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하자 남편은 탄압을 받았다. 공장에서 1년간 관찰하는 처벌을 받았고 그에게 매달 생활비를 200여 위안(한화 약 3만 7천 원)만 주었다. 그는 불평도 없이 그저 하던 대로 일했으며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도 했다.

동료들이 대신 분통을 터뜨리며 "선생님, 그만두세요. 겨우 고만한 돈을 받으며 왜 일하세요?"라고 말했다. 지금의 공장은 책임자는 탐오하고 노동자들은 대충대충 일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본업에만 전념했다. 연말 모범사원을 선정할 때 모두 그를 추천했지만 책임자는 파룬궁(수련생)을 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모든 직원이 남편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뽑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파룬궁 수련생이 모범사원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것이다.

손해배상금을 포기하고
대법으로 원한을 풀다

법을 배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인생의 참뜻을 깨닫게 됐다.

나는 대법을 얻기 위해 세상에 왔고 생생세세 윤회에서 수많은 업을 지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수련인 입장에서 이전의 고생과 어려움은 업을 갚은 것으로 나는 더는 마음이 쓰라리지 않았다.

6년 후 딸을 죽인 범인이 잡혔을 때 우리는 이미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었다. 시 중급법원이 우리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우리 부부는 의논을 거쳐 배상금을 포기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했다. "살인범에 관해서는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만 배상금은 그의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위해야 한다고 하셨기에 그 부모의 생활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배상금은 원치 않으며 일찍이 우리에게 빌린 1만 3천 위안(한화 약 213만 원)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생의 원한은 이번 생에 풀고,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던 판사는 수십만 위안을 요구해도 과분하지 않다며 "정말 배상을 포기하실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들은 대법제자가 정말 보통이 아닌 것을 체감했다. 결국 판사는 "파룬궁이라고 써 줄 수는 없어서 당신들이 배상금을 포기한다고만 적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여 년 수련하면서 대법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었고 사람 됨됨이와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를 알려줬으며, 더욱 높은 경지의 생명이 되게 이끌어줬다. 이로써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 사부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인도 의사가 겪은 기적

글/ 밍후이 기자 이리안 취재 보도

인도 콜카타 의대 병원 성형외과 학장인 우트팔 비트 박사(Dr. Utpal Bit)는 젊은 시절 천식과 관절염,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며 매일 흡입 치료와 항생제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의사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을 만났다.

우트팔 비트 박사

"저는 명상 등 다른 법문을 수련해봤지만 그것은 단지 제 이 몸이란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약간 윤활유를 치는 것 정도였어요. 그러나 파룬따파(法轮大法)는 새로운 부속품으로 교체해 최신식 기계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20대 중반부터 병마에 시달리다

비트 박사는 20대부터 만성 기관지 천식을 앓았다. 천식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약물은 관절염을 일으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양쪽 무릎이 아팠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먼지, 꽃가루, 목화, 각종 음식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호흡곤란, 후두염, 피부질환 등을 일으켰고 30대에는 고혈압에 걸렸다.

이후 천식과 알레르기가 그를 무너뜨려 정상적인 일과 생활은 희망사항이었으며 매일 산소흡입과 항생제에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비트 박사는 2004년부터 정신적 귀착점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스승을 모셨고 각종 문파와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2011년 10월, 한 친구로부터 파룬따파를 소개받았다. 파룬궁을 배운 첫날 밤 오래간만에 편히 단잠을 잘 수 있어서 그는 매우 놀랐다. 천식이 기적처럼 사라지고 알레르기 현상도 좋아졌다!

비트 박사는 파룬따파 공식 사이트(falundafa.org)에 접속해 파룬따파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대사님의 설법 녹음을 다운받아 매일 리 대사님의 설법을 듣는 동시에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몇 개월 후 그의 무릎은 더는 아프지 않았는데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괜찮았다. 현재 60대인 그는 몇 시간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30대에도 바랄 수 없었던 일이었다.

비트 박사는 "콜카타 의대 정형외과 학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많은 환자를 보고 각종 응급 중증을 다루며 수천 건의 수술을 한 적이 있으나, 자신의 변화는 의사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자만에서 겸손으로

비트 박사는 "이전에 저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교육과 인생 경험에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집에서도 권위적이었던 그는 전혀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부드럽고 너그러워진 비트 박사는 모순에 부딪혔을 때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배워 자기 생각과 행위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바르게 고치려 노력했다.

"파룬따파가 저를 매우 겸손하게 이끌었습니다"라고 비트 박사가 말했다.

대법 서적을 번역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다

파룬따파에서 직접 덕을 본 비트 박사는 이 불가(佛家) 수련대법을 주변 사

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인도 서부 벵골주에서는 대다수가 벵골어를 쓰기에 인도어와 영어를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비트 박사는 벵골어 대법서적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파룬따파 원작을 잘 이해하기 위해 비트 박사는 중국어와 한어 병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어로 된 파룬따파 서적을 다운받아 매일 출퇴근 길에 파룬따파 창시인 리훙쯔 선생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다.

번역 작업은 3년간 계속됐고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트 박사는 꾸준히 했다. 이것은 고향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일이고 대법 책이 있으면 고향 민중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비트 박사는 잘 알고 있었다. 비트 박사의 부인은 타자를 돕고 아들은 교정을 봐주며 번역 작업을 지지했다.

2016년 벵골어판 《전법륜》과 《파룬궁》이 잇따라 출간됐다. 연례 인도 콜카타 도서 박람회에서, 파룬따파 부스는 주말이면 파룬따파 서적을 문의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많은 사람이 책을 사자마자 이어서 공법을 배웠다.

이번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대면 홍법(洪法)과 공법을 가르치는 활동이 중단됐다. 비트 박사와 수련생들은 매주 한 번씩 인터넷에서 파룬따파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벵골어를 사용하자 인도 서벵골주와 이웃 방글라데시에서 인연이 닿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인도 콜카타 도서 박람회에 온 관람객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있다.

인도 학생들이 단체로 파룬궁을 배우고 있다.

"대법이 내 생명을 밝혀줘"

비트 박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대법 수련자들의 축소판과 같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며 세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진선인에 동화시켜 남을 위하는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 비트 박사는 "파룬따파는 제 삶을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가 인도에 널리 전해지다

인도는 한때 불법(佛法)이 창성했던 곳으로 많은 사람이 불연(佛缘)을 갖고 있다. '진선인(真·善·忍)'을 수련의 원칙으로 하는 파룬불법(法轮佛法)이 인도에 전해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2004년 9월, 인도 파룬따파 불학회가 뭄바이에 등록돼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단체가 됐다.

파룬궁은 인도 학교에서 특히 성행한다.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에 따르면 일찍 2008년 벵갈루루에서만 80여 개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파룬궁을 수련했다. 체육 시간에 학생들은 단체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연마한다. 수련 후 학생들은 몸 상태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수업에 더 열중하면서 보편적으로 학습 성적이 향상됐다.

현재 인도의 뭄바이, 뉴델리,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많은 대도시에 파룬궁 연공장이 있다. 의료 자원이 결핍한 인도 사회에서 완전 무료인 파룬궁은 하늘이 준 선물임에 틀림없다.

대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온 세상 사람이 함께 「5.13」을 경축하다

22년 전 세계 각 지역 17개 파룬불학회는 공동 협의를 통해 공고를 발표했다. 2000년에 5월 13일을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하고 전 세계 대법제자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중대한 의의가 있는 날을 기억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며, 함께 경축하고 대법 진선인(真 · 善 · 忍)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로 했다.

올해 5월 13일은 제23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자 파룬따파 세계 홍전(洪傳) 30주년이다. 세계 각지 각 민족 대법제자와 세인은 각종 형식으로 함께 이 위대한 명절을 경축하고, 파룬따파와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대사께서 인류에게 가져다준 은혜에 감사드렸다.

세계 정계인사 1천여 명, 파룬따파 세계 홍전 30주년 축하

파룬따파(法轮大法) 세계 홍전(洪传) 30주년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천여 명의 주요 정계 인사들이 각지 파룬궁(法轮功) 수련생들에게 표창과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파룬따파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한 뛰어난 공헌을 칭송했다.

미국 100여 개 도시에서 '파룬따파의 날' 선포

미국에서는 올해 100여 개 도시가 5월 13일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여러 도시에서 국기 게양식을 열고 파룬따파의 깃발을 게양했다. 미국 수많은 국회 의원, 주지사, 주의회에서 파룬따파와 그 창시자를 표창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 의장인 엘리스 스테파니크(Elise Stefanik)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이 뉴욕 파룬따파 수련생들에게 국회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은 "뉴욕주 파룬따파 수련생들에게 파룬따파가 중공의 박해 속에서도 지켜진 지 23년이 되는 날을 기념한다"라고 밝혔다.

엘리스 스테파니크 의원

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델라웨어 주 등 여러 주 의회가 잇달아 파룬따파 표창 결의안을 채택했다.

캐나다 23개 도시, '파룬따파의 날' 축하 깃발 게양

캐나다에서는 23개 도시에서 깃발 게양식이 열려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시장들은 게양식을 주재하고 표창 서한을 낭독함과 아울러 '파룬따파의 달' 혹은 '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했다.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개최한 축하 행사에는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는 집회에서 "리훙쯔 대사님이 널리 전하신 파룬따파는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의 삶을 불가사의하게 변화시킨 영원한 힘입니다"라며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생들과 함께 서서 진선인(真·善·忍)과 중국 인권을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쿠퍼 의원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인사들의 표창장과 축하 편지 일부.

스웨덴 국회의원 "지금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선인"

한스 로텐베르그(Hans Rothenberg) 스웨덴 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파룬궁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유익하다"라며 "지금의 세계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진선인이며 선량함과 관용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중공이 저지른 파룬궁 수련생 박해와 생체장기 적출의 반(反)인류 범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스 로텐베르그 의원

스위스 연방의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로렌스 펠만 리엘(Laurence Fehlmann Rielle) 스위스 연방의원은 언론에 "파룬따파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수련할 수 있고 중국에서만 박해받는 파룬따파 수련자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 누구나 선량, 관용, 성실이라는 그들의 가치관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엘 의원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중공 정부에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파룬따파는 좋고 정법(正法)이다"라고 말했다.

로렌스 펠만 리엘 의원

뉴욕 홍수에서 신적(神迹)을 목격하다

글/ 허펑(何峰, 미국 뉴욕 거주)

뉴욕에 사는 허펑(何峰)은 지하실이 홍수로 물에 잠겼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경에서 벗어났다. 3일 후에야 물이 빠졌다. 허펑은 소중한 서책을 담아놓은 상자가 늘 마음에 걸려 급히 집에 돌아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책을 넣어둔 상자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아래는 허펑이 겪은 일과 목격한 것을 서술한 것이다.

2021년 9월 1일 뉴욕에 하루종일 큰 비가 내렸다.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빨리 일어나요, 집에 물이 들어와요!"라고 외쳤다. 살펴보니 물이 뒷문에서 방으로 흘러들어왔다.

내가 사는 곳은 뉴욕 키세나 공원 인근에 있는 집 지하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책과 그림이 있었고 많은 책을 바닥에 놓아뒀다. 나는 즉시 책을 소파와 책상 위로 옮기고 대야로 물을 퍼냈다.

그러나 갈수록 물이 차올랐고 앞문의 하수도가 이미 막혔다.

마지막 순간에 사경에서 벗어나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내가 뒤돌아보니 물이 방으로 확 밀려들어 왔고 거의 천장 높이까지 차올랐다. 맹수처럼 달려들어 온 물에 뒷문은 모두 부서졌고 앞쪽 문을 꽉 막았다.

대략 3초 사이에 내 방 전체가 물에 잠겼다. 1초 동안 물이 내 허벅지 부위까지 불었고 2초 만에 거의 어깨에 이르렀으며 3초는 최후의 1초였다. 물이 천장까지 차오를 찰나에 나는 왼손으로 앞문 유리를 깨뜨렸고 물은 내 귓전을 스치며 깨진 유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문 위에는 두 개의 유리만 있었고 나는 왼손으로 두 번째 유리를 깨뜨렸는데 흘러나가는 물이 내 허리까지 내려왔다. 나는 아주 작은 문의 삐쭉삐쭉한 유리 사이로 탈출했으며 그러다 그만 유리에 손을 깊이 찔려 나중에 47바늘을 꿰맸다.

위층 집주인이 사는 1층 거실에 와서야 우리 집 입구가 모두 잠겼으며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도 모두 지붕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사는 지하실은 즉시 물에 잠겼고 나는 마지막 1초에 살아나왔던 것이다.

아무런 손상도 없는 박스에 대법 책이 담겨 있었다

셋째 날이 되자 물이 다 빠졌다.

나는 손에서 많은 피를 흘려 몸이 아직 허약했으나 책 상자 하나가 염려됐다. 거기에 파룬따파 사부님의 설법 40여 권이 들어있었으며 책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매우 걱정됐다.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 온통 난장판이었다. 폐허 속에서 나는 마침내 그 책 상자를 찾았다.

이는 천제서점에서 구매할 때 포장한 종이 상자로 덮개는 밀봉하지 않았다. 열어보니 책 상자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야말로 멀쩡했다. 정말로 신적(神迹)이었다!

그 찰나에 나는 깨달았다. 일체는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대법만이 유일하게 진실했다.

나는 책 상자를 1층으로 옮기고 집주인 부부를 불렀다. 그들은 모두 부처를 믿는 사람으로 선량하고 너그러웠다. 그들도 상황을 보고 찬탄해 마지않았다.

위험한 순간에 진언(真言)을 염하다

집주인은 미국인 노인이다. 그들은 뉴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평생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큰 홍수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방 뒷문은 집주인 차고에 붙어 있고 차고 입구는 오르막이었다. 물이 거기에 쌓여 어느 정도 힘이 모이자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

집주인 부부는 다행히 직전에 그곳을 떠났다. 만약 1~2분만 늦었더라면 담장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른다. 인근에 살던 예술가 일가족 세 명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언론 보도에서 이번 홍수로 적어도 1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1명이

지하실에 거주했다.

내가 손으로 깨뜨린 유리는 원래 매우 단단했다. 사경에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1초에 사실 나는 물에 완전히 잠겨 이미 힘이 없었다. 신기한 것은 손으로 문의 유리를 깨뜨릴 때 그 유리가 뜻밖에 쉽게 깨진 것이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했다. 매우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외웠는데 마음에서 저절로 나왔다. 사실은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이다!

기쁨과 감사

많은 그림과 대량의 작품이 모두 파괴됐고 수백 권의 책도 전부 훼손됐다. 친구들은 날 보러 와서 말했다. "아, 그간 심혈을 기울인 이렇게 많은 작품이 다 망가지다니, 우리 모두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해."

나는 마음 아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나는 즐거웠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확은 내면의 수확이었고 생명을 다르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법 사부님께 이런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일한 소원이라면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왜 늘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었을까?

글/ 루쥔(陆君)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고, 사람은 화와 복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재난이 복으로 바뀌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긴 행운아가 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금갑신(金甲神)이 금 씨를 보호하다

명나라 가정(嘉靖) 초년에 강소 의정(仪征)현에 전당포를 차린 금(金) 씨 상인이 있었다. 정직한 그는 일반 전당포처럼 지출은 적고 수입은 많게 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공평히 했다. 빈곤한 노인들이 전당포에 오면 금 씨는 늘 예외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엔 솜옷에 이자를 붙이지 않았고 여름엔 여름옷 이자를 받지 않았다.

비록 금 씨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지만 전당포 장사는 갈수록 번창했다. 금 씨도 현지의 유명한 부자 상인이 됐다.

어느 해 도시에 한 무리 강도가 몰려와 많은 부자가 거의 다 약탈당했지만 이상하게도 금 씨네는 무사했다. 이는 자연히 금 씨가 강도와 결탁했을 거라는 관청의 의혹을 샀다.

관청은 강도들을 모두 붙잡아 심문했지만 아무도 금 씨와의 연루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매우 궁금해서 강도가 왜 금 씨의 전당포를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도들은 금 씨의 전당포에 몇 차례 갔지만 지붕 위에 쇠붙이 갑옷을 두른 신들이 수두룩해서 감히 문을 부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청과 지방 민중은 그제야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금 씨가 평소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신이 보호해주신 것이었다. 관청은 금 씨에게 현판을 내려 표창을 하사한 것은 물론 그의 선행이 가져다준 좋은 결과를 널리 알렸다.

원촨(汶川) 지진에서 사상자가 없었던 일가족

밍후이왕에는 2008년 원촨 대지진 당시 쓰촨성의 한 농촌 부녀 가족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이 실렸다.

매년 5월은 현지 농촌의 바쁜 계절로 날씨가 더울 때라 점심 식사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2008년 5월 12일, 그녀는 웬일인지 온 가족이 집에 머무르지 못 하게 하고 밭에 가서 일하려 했다.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흔들리고 논밭의 물이 1미터 넘는 높이로 일면서 사람들이 논에 쓰러졌다. 원촨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지진 후, 그녀의 남동생네는 집 담장이 크게 갈라졌고, 여동생네 집은 반쯤 무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다! 낮잠 자는 버릇이 있던 일흔이 넘은 시형은 공교롭게도 그날 누가 놀러 가자고 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 순간 그의 주변 집들이 모두 무너졌다….

파룬궁(불가수련대법)을 수련하는 이 농촌 부녀 일가족은 모두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삼퇴(중공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했기에 대법의 보호를 받아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신불(神佛)에 대한 믿음이 깊고 마음씨가 고운 까닭에 어둠 속에서 신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로 이민 온 후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글/ 밍후이기자 원쥔(文君) 시드니 취재 보도

닌시는 아버지의 파룬궁 수련을 반대하던 데에서 수련에 들어서기까지 한바탕 우여곡절을 겪었다.

닌시는 중국에 있을 때 대학교 아파트에서 살았다. 젊고 유망하며 재능이 넘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있었으며 영원한 사랑을 굳게 맹세한 연인도 있었다. 또래보다 몇 배 넘는 우월한 삶을 살았다.

기공 애호가였던 닌시의 아버지는 많은 기공학습반에 참가했고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했다. 아버지가 《파룬궁(法轮功)》 책을 그녀에게 소개했을 때 닌시는 일반 기공이라 여겼다. 자신감에 넘쳤던 그녀는 사업과 결혼에 많은 동경이 있어 수련할 생각이 없었으며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된다고 여겼다.

분신자살 거짓말을 믿어 불운을 만나다

2001년 1월 23일, 중공 CCTV의 '뉴스연합보도(新闻联播)'와 '초점취재(焦点访谈)'에서 방송한 '천안문 분신자살' 방송에 닌시는 현혹됐다. TV에서 파룬궁에 대한 먹칠 선전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닌시는 말했다. "저는 TV에서 방송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닌시는 아버지에게 파룬궁을 연마해서는 안 되며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말솜씨가 없으셔서 '우리는 이렇지 않아. 나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CCTV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닌시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경찰이 아버지에게 다시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라는 상황을 봤다. "아버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셨습니다. 경찰은 매우 화가 났고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대치했습니다." 닌시는 아버지를 설득해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했다.

뜻밖에 그 후에 닌시의 삶이 급변해 불운이 그녀를 감쌌다. "우선 저를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며 함께 분투해온 남편이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 단호히 저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일본 정보통신기업은 경제위기를 겪은 후 매일 감원했고 수입도 단번에 줄었습니다. 몸에 영문도 알 수 없이 문제가 생겨 식은땀이 나다가 현기증이 나고 몸에 힘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주 친구의 말에 매우 뜻밖이라고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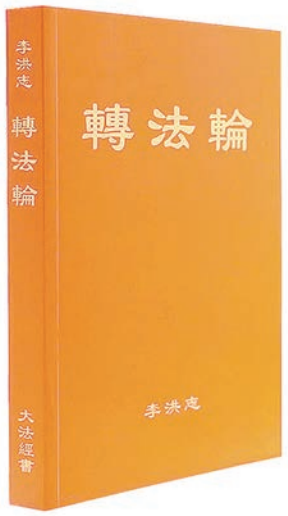
2004년 닌시는 기술 이민으로 호주에 온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따라서 호주에 이민을 왔으며 아이를 돌봐주면서 한편으로 호주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 편히 수련했다. 그러나 닌시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 진상을 알리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11년 7월 말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자신이 모르는 정황에서 《전법륜(转法轮)》 한 권을 그녀 친구에게 준 사실을 알았다. 친구의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제 친구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에게 책을 선물한 것을 알게 된 닌시는 매우 화가 났으며 요언 선전으로 대법에 아직 편견을 갖고 있었다.

당시 닌시는 친구 집으로 달려가 만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는 "우리 아버지가 네게 《전법륜》을 줬어? 너 절대 읽지 마"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닌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는 그녀에게 "《전법륜》을 봤어. 매우 이치가 있더구나. 나는 지금 그 다섯 세트의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어"라고 말했다.



네시는 매우 뜻밖이어서 생각했다. '망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믿으면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 친구까지 빠져들었구나. 나는 방법을 생각해 그들을 구해야 해.'

《전법륜》에서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하여 네시는 직접 《전법륜》 한 번을 다 보았다. 그런데 본 후 그녀는 이 책이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며 왜 이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진선인을 행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을 알았다. 책에서 파룬궁 수련자는 살생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했으며, 중공의 선전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물론, 책에서는 '정치를 하는 것'에 관련된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단번에 네시는 파룬궁에 갖고 있던 편견이 철저히 깨졌다.

그 무렵 네시는 이미 한 살과 네 살 된 두 아이가 있었다. 매일 쉴 새 없이 바쁜 집안일에 책을 볼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네시는 집안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잠든 후 전등을 끄고 잘 준비를 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막 앉던 순간 갑자기 《전법륜》 책이 떠올랐고, 정말 좋은 책이니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념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그녀는 눈앞이 한 번 밝아지더니 다른 공간으로 들어갔다.

네시는 《전법륜》을 한 차례 다 본 후, 이 책은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고, 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진선인을 행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곳은 하나의 무릉도원이었습니다. 햇살이 빛나서 아름다웠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향기로웠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았고 모든 것은 겪어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때 또 멀리서 다른 한 시공이 제 앞으로 가까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부지불식간에 이 공간으로 진입했고 신체는 단번에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굽어보니 대지는 끝없는 산맥으로 길게 이어졌고 온통 생명력이 흘러넘쳤으며 공기는 매우 깨끗하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공중에서 비행하면서 산골짜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몸소 《전법륜》에서 말한 다른 공간을 체험한 네시는 말했다. "저는 파룬따파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정법이며 제가 찾던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부터 네시는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수확, 이해와 기대

파룬궁 수련은 네시의 가장 큰 수확으로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몸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몸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는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각종 갈등에 부딪혔을 때 더는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았으며 더욱 높은 경지에서 일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은 이로써 풀어졌고 저라는 이 생명이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왜 아버지가 계속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은 모두와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시는 불법(佛法)은 얻기 어려우며 정법(正法)을 구하기란 더 어렵다며 자신이 겪은 경험이 다른 중국인에게 다소 계발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사람들이 《전법륜》을 찾아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다.

기이한 책

《전법륜(转法轮)》은 파룬궁의 주요 저서이며 백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여러 인종의 파룬궁 수련자가 매일 필독하는 경전이다. 《전법륜》은 예로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했으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우주, 인생의 미혹을 풀어줬고,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심신에서 수혜를 입고 도덕이 향상됐다.

1996년(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 《전법륜》은 여러 차례 《베이징청년보》, 《베이징만보》, 《베이징일보》에서 베스트셀러에 선정됐다.

2004년 12월 《전법륜》은 호주 방송국 경선에서 호주 100권의 가장 환영받는 서적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가장 환영받는 서적 중에서 유일하게 동양에서 온 불법(佛法) 수련 서적이었다.

오늘날 《전법륜》은 40여 종의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에서 공개 출판 발행되고 있으며 역사상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 서적이다.

천안문 분신자 류춘링의 많은 현찰이 수상하다며 이웃들이 의논하다

[중국 투고] 2006년 나는 장사하러 카이펑(开封)에 갔었는데 상대방도 여자였다. 내가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 뜻밖에도 상대방은 그 현장에서 가격으로 숨진 류춘링과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류춘링(刘春玲)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녀가 말했다. "외지인이었던 류춘링은 남편과 이혼한 뒤 어머니(양모)와 딸 류쓰잉(刘思影)을 데리고 카이펑에서 살았어요. 생활난으로 인해 화가 날 때면 늘 류쓰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했어요. 이웃들은 그녀가 불쌍했으나 고통받는 아이가 더 불쌍했어요."

"나중에 그들 모녀를 며칠간 보지 못했는데 TV에서 그들이 천안문에서 분신자살했다며 또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스웠는데 저는 류춘링과 그렇게 가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는데 그녀가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말을 전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때 파룬궁은 카이펑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핑궈위안(苹果园) 구역에도 있었어요. 새벽같이 녹음기 음악을 들으면서 연마하는 할머니들은 길가에 늘 있었는데도 류춘링이 연마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당시 살아가기도 힘든 류춘링이 공을 연마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분신자살'이 가짜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구역 주민들은 남의 꼬임수에 빠져 해를 입은 류춘링이 정말 불쌍했어요."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분신자살 후 며칠 뒤 경찰이 류춘링의 집을 수색할 때 나와 이웃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경찰은 류춘링 집에서 현찰 10여만 위안(추정)을 백 위안짜리 묶음으로 찾아냈어요."

"이웃들은 류춘링이 그토록 가난한데 집에 웬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수군거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도 류춘링 모녀가 목숨과 바꾼 돈인가 봐요. 사람이 꼬임수에 죽었는데 그 더러운 돈을 또 당에서 가져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잡아먹고도 뼈마저 내뱉지 않는 격이지요! "

분신자살 거짓 사건에 드러난 뚜렷한 허점

1. '분신자살' 1분 만에 천안문 광장에 소화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경찰은 소화기를 들고 순찰하는가?

2. '분신자살' 영상은 원경, 중경, 근경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문 촬영 영상이다. 사전 배치가 없이 어떻게 이런 촬영을 할 수 있겠는가?

3. 심각한 화상을 입은 듯 보이는 왕진둥의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가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사이다병은 불에 녹지 않았고 새것처럼 새파랗다.

4. CCTV는 류쓰잉이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 의학 상식에 어긋난다.

5. 파룬궁 서적에, 연공자는 살생할 수 없으며 자살은 유죄라고 명시돼 있다.

느린 화면 분석: 류춘잉은 화상으로 죽은 걸까, 맞아 죽은 걸까?

'분신자살' 영상은 원경과 중경, 근경이 모두 갖춰져 있다. 류춘잉 몸에 붙은 불길이 거의 꺼진 상태에서 누군가 갑자기 물체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즉시 쓰러지는 순간, 길쭉한 물체가 빠르게 튀어 올라 그녀 머리 뒤로 수 미터나 날아가 다시 빠른 속도로 공중에서 떨어졌다.

누가 가격한 사람인가? 느린 화면 분석을 통해 흔들리는 팔이 류춘링의 머리 쪽으로 다가오자, 코트 차림의 한 남성이 그녀를 때리기 1초 전 가격하던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올해 5월 13일은 파룬따파가 세계에 전해진 지 3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캐나다 23개 도시와 미국 여러 도시에서 파룬따파 깃발 게양식이 열리거나 도시 상징물의 등을 켜고 파룬따파가 인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한 거대한 공헌을 표창했다.

5월 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4개 시 시장이 같은 날 국기 게양, 점등식을 주재하고 파룬따파를 표창하며 9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선인(真 · 善 · 忍)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칭송하며 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 위: 스티브 클라크(Steve Clarke) 오릴리아(Orillia) 시장이 직접 깃발 게양식을 주재했다. 오른쪽 아래: 벨레빌(Belleville)시 상징물에 전등이 켜졌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기

컴퓨터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